

김 소 희 개 인 전



Merry go round, Oil on canvas, 91×116.8cm, 2014

전시명	김소희 개인전
전시일정	2015.12.22 – 2016.01.22
관람시간	Mon-Fri 10:00am-6:30pm Sat 10:00am-5:00pm Sun Close, (전시기간 중 휴무 안내: 12.25(Fri), 1.1(Fri)-1.3(Sun))
전시장소	갤러리 플래닛,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75길 93 웅암빌딩 2F T. 02 540 4853 www.galleryplanet.co.kr



갤러리 플래닛은 2015년의 마지막 전시로 현대인의 모순, 소외감, 고독, 억압 등을 유머러스한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가 김소희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김소희는 유행과 경향에 편승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판화의 매체적 특성을 바탕으로 판화의 고유한 특성에 충실한 작업을 추구하고 있다. 그가 판화에 주로 사용하는 기법은 신콜레 (Chine-Colle)라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기법으로, 종이를 콜라주하여 그 위에 판화를 찍는 방법을 응용한 것이다. 마치 애니메이션의 컬러링과 같이 부분적으로 잘라낸 한국의 전통 색 한지를 투명한 종이와 판화지 사이에 끼워서 찍어내는 방식으로 프린팅 하고 있다. 김소희는 이러한 독보적인 표현방식으로 2015년 크라코우 국제판화 트리엔날레에서 Honorary Mention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크라코우는 전세계적으로 국제 판화 공모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모전으로 판화가들에게는 매우 영광스러운 상이기도 하다.

http://www.en.triennial.cracow.pl/MTG'15/Laureates_of_MTG_%E2%80%93_Krak%C3%B3w_2015/

김소희의 작품에는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크' 하며 웃음 짓게 만드는 요소들이 숨어있다. 작가는 본인이 그려내고자 하는 웃음을 '자신이 처한 부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현실과 정직하게 마주보고, 이윽고 그 부조리를 극복해내는 힘' 이라는 말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삶 구석구석에서 부조리와 자주 대면한다는 사실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여행가방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에는 어떤 부조리가 있는 것일까? 또한 사람들이 옷걸이에 걸린 듯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세탁소에 걸린 옷들 사이로 젊은 여성이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듯 보이는 작품 'Interruption'은 어떠한가? 이 작품들 안에는 이미 '웃음'에 대한 코드는 찾아볼 수 없고, 마치 수수께끼와도 같은 의문들만 맴돌고 있다. 젊은 여성들이 대롱대롱 매달린 회전목마의 작품에서도, '운명'에 농락당하는 인간존재의 나약함만이 드러난다고도 할 수 없겠다. 이런 이슈를 던지기에는 뭐랄까, 작품 분위기가 너무나 평온하고 차분한 느낌이다. 또한 어둠 속으로 머리를 들이키는 모습을 그린 작품들도 있지만, 이것은 사회와 소통함을 거부하는 현대인들의 내향적인 심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풍자화인가?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제각각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작품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일괄되게 '우리 삶 속 부조리'라는 것이며, 그것이 숨바꼭질하듯 보일 듯 안 보일 듯 하다는 것이다.



김소희의 작품에는 인물 대신 사회적 인격을 상징하는 옷이 자주 등장시키곤 한다. 지하철 안, 놀이 공원 등 현대인의 일상적 환경이 작품의 배경으로 되고 그 속에 시각적으로 화사한 옷이 넘쳐나는 화려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패턴으로 감추어진 옷 속에서 공허하고 외로움을 감춘 인간 개개인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그녀의 작품 속의 유머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하는 접착제의 역할을 한다. '유희'라는 도구를 통해서 도피가 아니라 더욱 성실하게 현실을 마주하고 싶은 작가의 소망이 담겨있는 듯 하다.

작가는 결국 작품을 통해서 힘겨운 일상을 사는 현대인에게 유머 섞인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자 한다.

갤러리 플래닛 에서의 이번 전시는 대학 졸업 이후 줄곧 도쿄에서 수학하며 작업 활동을 펼치는 작가의 8년 만에 보여지는 국내 개인전으로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판화, 페인팅, 조각 등 20여점의 작품이 전시될 이번 개인전에서 작가의 판화 작업에 근간이 되는 다양한 작업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전시기간 중 일반인이 간단한 재료로 가정에서도 해볼 수 있는 판화 기법이 시연되는 워크샵과 함께 김소희의 최근 출간도서 [동판화로 만드는 종이잡화 (페이퍼크래프트)]를 소개하는 아티스트 토크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동판화로 만드는 종이잡화 (페이퍼 크래프트)]는 총 3명의 젊은 여성 판화작가가 참여하여 명함, 마이 태그(라벨), 기프트 카드, 장서표 등을 제작하는 과정이 소개되는 책으로 김소희의 특징적인 기법인 신콜레(덧붙여찍기) 기법을 응용편으로 따로 소개되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작 가 약 력

김소희 / b. 1983 -

2013 타마 미술대학 대학원 미술전공 박사과정 졸업

2010 타마 미술대학 대학원 회화전공 판화연구 석사과정 졸업

2007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 졸업

주요 개인전

2015 Way Home, 갤러리 플래닛, 서울

Unmentionables, 데이비슨 갤러리, 시애틀, 워싱턴

2014 김소희 展, 시로타 화랑, 동경

2013 P・S展 2인전, Art for thought, 동경

김소희 展, 노다 컨템퍼러리, 나고야

김소희 展, 갤러리 우고스, 동경

2011 김소희 展, 시로타 화랑, 동경

김소희 展, 갤러리 케이, 동경

2010 김소희 展, 시로타 화랑, 동경

2009 SIPA Belt Artist Project, 한가람 미술관, 서울

2008 제12회 BELT 선정작가전, 동산방화랑, 서울

아트스페이스 놀이터 초대작가전, 아트스페이스 놀이터, 대전

Yap 선정작가전, 정 갤러리, 서울

주요 그룹전

2015 제3회 상하이 국제 판화전, China Art Museum, 상하이

Printism, Art lounge FAB, 동경



- CWAJ 현대판화전, 아메리칸 클럽, 동경
- 테라다 컬렉션 - 웃음과 유머, 동경 오페라시티 갤러리, 동경
- 2014 제1회 Tanhualin-Guanlan 국제 판화 초대전, Tanhualin Art Museum Hubei Institute of fine art, 중국
- CWAJ 병설전-The palate meets the palette, 아메리칸 클럽, 동경
- Almost Unframe, THE PALMS DECOR & LIFESTYLE CENTRE, 케이프타운, 남아공
- 2013 Painting, Objects And Photographs, 츠바키 화랑, 동경
- Art Meeting, 긴자 미츠코시 갤러리, 동경
- Art Road 77, 헤이리, 파주 헤이리
- Car Story, 아트팩토리, 파주 헤이리
- Art Nagoya, 웨스턴 나고야 캐슬, 나고야
- CWAJ 현대판화전, 아메리칸 클럽, 동경
- 2012 Challenge Art in Japan 2012, 한국문화원, 동경
- CWAJ 현대판화전, 아메리칸 클럽, 동경
- Emerging Korean Artists Exhibition, 갤러리 Q, 동경
- 2011 소형 판화전, 갤러리 진, 동경
- CWAJ 현대판화전, 아메리칸 클럽, 동경
- 2010 New print artist 2010, 갤러리 진, 동경,
- CWAJ 현대판화전, 아메리칸 클럽, 동경
- 2009 판화, 일본화전, 사토미술관, 일본
- 대학 판화전, 마치다 국제판화 미술관, 일본
- Via art, 신와 아트 뮤지엄, 일본
- 凹凸전, 갤러리 잔다리, 서울
- 행복한 상상 프로젝트, 아람미술관, 고양
- 2008 제 3회 신진작가 발굴 공모전 YAP, GALLERY 정, 서울
- 판화와 그후20년 전, 관훈미술관, 서울



주요 수상경력

2015 크라코우 국제 판화 트리엔날레 Honourable Mention, 크라코우, 폴란드

 동경국제 소형판화 트리엔날레 입선, 동경, 일본

2014 제 9회 고치 국제 판화 트리엔날레 입선, 고치, 일본

2013 아와가미 국제 소형 판화전 비엔날레 입선, 토쿠시마, 일본

2012 크라코우 국제 팔화 트리엔날레 입선, 크라코우, 폴란드

 일본 슌요우카이 공모전 판화부분 대상, 동경, 일본

 방콕 국제 판화&드로잉 트리엔날레 매입상, 방콕, 태국

2011 서울 공간 국제 판화 비엔날레 입선, 서울

2009 루마니아 국제판화 비엔날레 입선, 프라호바, 루마니아

 바르나 국제 판화 비엔날레 입선, 바르나, 불가리아

 불가리아 국제 소형판화전 입선, 소피아, 불가리아

 제 15회 서울 공간 국제 판화 비엔날레 입선, 서울, 한국

 Via art 입선, 동경, 일본

 제 77회 일본 판화협회전 입선, 동경, 일본

 하마구치요조 탄생 100년기념 동판화 대상전 입상, 동경, 일본

주요 소장처

고치 현립 미술관, 고치시, 일본

사키마 미술관, 오키나와현, 일본

동경 오페라 시티 문화재단, 동경, 일본

국립현대 미술관, 한국

시애틀 시청, 시애틀, 워싱턴



전 시 작 이 미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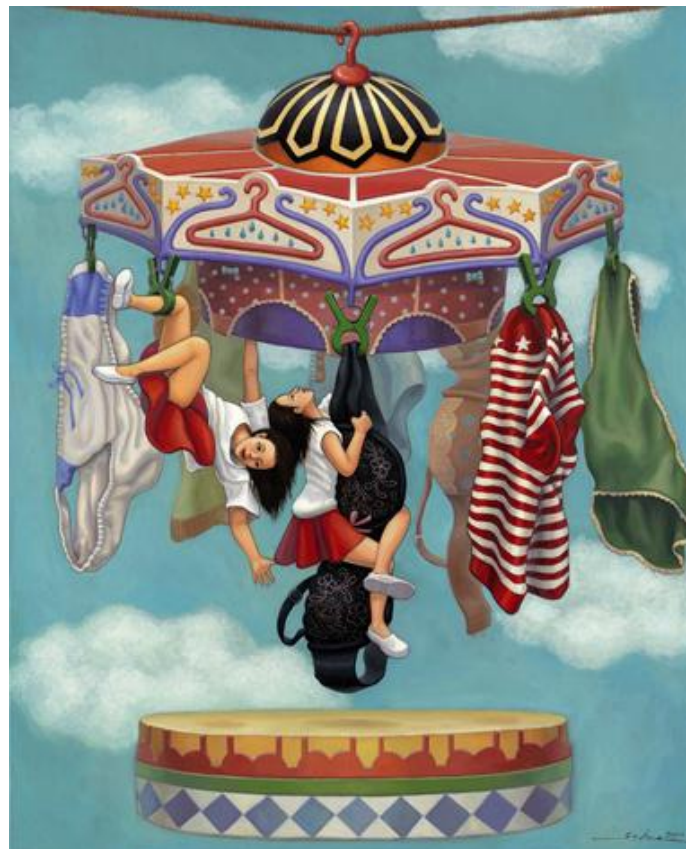
Way home, Oil on canvas, 130.3×162.2cm, 2015



Merry-go-round, Oil on canvas, 91×116.8cm, 2014



Merry-go-round II, Etching and Chine-colle, 60×45c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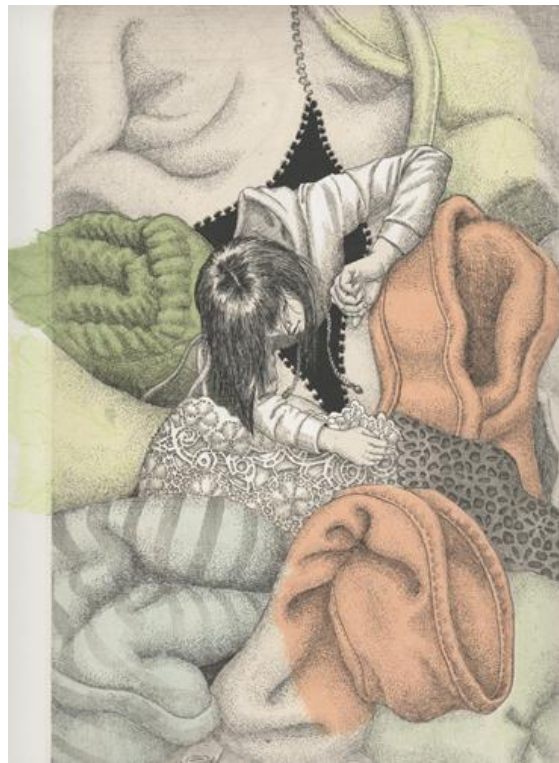
Merry-go-round, Oil on canvas, 80.3×65cm, 2014



Way home, Etching, Chine-colle, 60×80cm, 2015



Present, Etching, Chine-colle, 25×20cm, 2014



□...1, □...2, Etching, Chine-colle, 30×20cm(each),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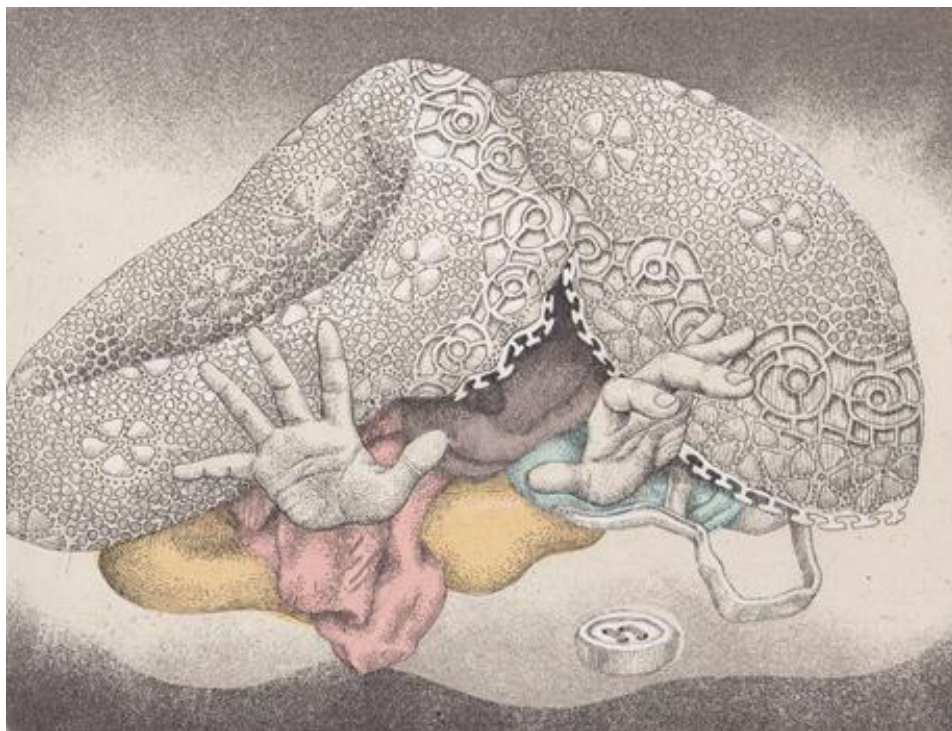
Merry go round, Etching, Chine-colle, 60×80cm, 2014



My Pet4, Etching, Chine-colle, 27×20cm, 2014



My Pet2, Etching, Chine-colle, 27×20cm, 2011



Hatch, Etching, Chine-colle, 15×20cm, 2013